

서사시

# 겨레가 부르는 2월의 태양찬가

김영일

산천도 그리움의 서리꽃을 피우는  
경사로운 2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이 마음  
속에

더욱 숭엄히 새겨지는  
아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여

뜨거운 추억을 불러주누나  
우리 장군님 리용하시던 승용차며  
경쾌한 기적소리, 발동소리  
오늘도 심금을 울리며 들려올듯싶은  
렐차며 배며...

이 승용차를 타시고  
이 배를 타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이 렐차를 집무실로 집으로 삼으  
시고  
우리 장군님  
인민의 행복만을 가꾸어주셨던가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도  
꿈을 꾸어도  
늘 조국통일을 생각해야 한다 하시며  
한평생을 조국통일을 위해 다 바쳐  
오신분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실현으로  
오늘도 온 겨레를 부르며  
또다시 달릴것만 같은  
불멸의 사적물들에 마음을 싣고  
가자 철세위인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세계  
뜨겁게 새기며 가자

## 1

수천리눈길을 헤쳐  
금방 이 흠에 들어와 벗어선듯  
너무도 낮익은 승용차  
저 차문을 여시고 우리 장군님  
환하신 미소 짓고 내리실듯

내 마음에 들려와라  
한평생 통일을 위해 고통치던  
우리 장군님 십장의 박동소리처럼  
이 땅에 울려가던  
승용차의 발동소리

그 발동소리 따라  
나의 추억은 달려라  
눈덮인 북방의 외진 산골길  
얼음 깔린 그 길로

뿐아니 날리는 눈갈기  
한치알도 가려보기 힘든 눈보라속에  
쏟아질듯 달리는 장군님승용차  
뒤따르던 차들은 아득히 떨어지고...

지금도 울려오는듯  
송구스러워하는 일군들에게  
장군님 하시던 말씀  
내가 탄 승용차가 너무 빨라  
동무들이 따라오기 힘들다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가

이번 길은 강행군길이기때문에  
신들메를 단단히 조이라  
나를 따라 달릴 기력과 능력이  
부족하면  
따라서지 않는것이 좋겠다

그때 일군들 말씀드렸더라  
길이 얼음강판처럼 미끄러워  
너무도 위험하다고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었으면  
한다고

그이 어이 모르시었으랴  
일군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자신의 안녕을 바라는  
자신의 진정은 고마웠지만  
절절히 하시던 장군님말씀

—우리가 걸음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그만큼 조국통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라 없이  
장군님 나직이 말씀하셨건만  
그이의 음성  
폭풍처럼 격랑을 일으켰다  
일군들의 가슴가슴에

우리 걸음이 늦어지면

통일이 그만큼 늦어진다  
겨레가 그리도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조국통일이!

그래서였으리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압살책동  
년년이 들이닥치는 자연재해  
전대미문의 그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민족의 통일념원을 언제나 안고사신  
것은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보다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생각 앞세워야  
한다시며  
최전방 관문점으로 나가시고  
내내 리는 백 두의 산정에도 오르  
시고...  
통일애국의 천만리장정을 이어오셨  
어라

그 날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불멸의 로작들이 발표되어 겨레의  
알길  
휘황히 밝혀주었고  
분렬의 먹장구름을 떠밀어내며  
마침내 력사적인 평양상봉은 펼쳐졌  
거니

55년 기나긴 분렬력사에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상봉  
삼천리가 통일의 열기로 뚫어번지고  
온 세계가 격정의 눈길을 모으던  
그 6월

대결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으시며  
사상과 제도, 정견을 넘어  
남남사절 뜨겁게 포옹해주시고  
승용차에 함께 오르실 때  
온 겨레가 절감했어라  
우리 장군님의 통일의지들

끝없는 꽃물결이 펼쳐진  
환영연도를 따라 달린 승용차  
통일의 길에 겨레를 위한 길에  
하많은 사연 수놓은 승용차여서  
겨레의 격정 그처럼 뜨거웠던가

아, 정녕 그날은  
온 겨레를 품에 안아  
6.15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넓은 길에 세워주신  
크나큰 감격과 경사의 날

우리 민족끼리!  
그것은 통일의 새 시대  
력사의 새 시대를 여는 장엄한 선언  
장군님의 통일의지 통일신념이 세운  
자주통일의 리정표였나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것이  
길이라 하였지만  
통일을 위해 걸으신 장군님의 길  
그 길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애국애족의 길  
하루도 순간도 휴식없이  
장군님 가고가신 통일의 길  
그 길에서 하시던 장군님 말씀  
오늘도 겨레의 가슴을 진다

—이렇게 깊은 밤길이  
조국통일에 가닿아있다면  
나는 이제라도  
백리 천리를 더 가고싶소

오늘도 우리 겨레 가슴가슴에  
끝없이 메아리치는 그 말씀  
정녕 아버지장군님  
밤이나 낮이나 통일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시었거니

진정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생애의 1분1초도  
깡그리 다 불태워오신  
통일헌신의 열화같은 한생

우리 장군님 가신 모든 길은  
조국통일을 위해 가고가신 길  
우리 장군님의 시간은  
조국통일을 앞당겨오신 시간

이 나라의 산과 들을 끝없이 누비  
시며  
통일의 대강을 무르익히시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시던  
철세위인의 불멸의 자욱을 전하며  
오늘도 승용차는  
겨레의 마음속에 끝없이 달리고있  
어라

## 2

지금도 기적소리 드높이  
두줄기 레루를 줄기차게 누비는듯  
생각도 많아라  
우리 장군님 리용하시던 렐차여

이 렐차를 집으로, 집무실로 삼으  
시고  
어디랴 이 나라 방방곡곡  
찾고 또 찾으시며  
불철주야 강행군을 하신 장군님

그 길에 수놓아진  
하늘의 별처럼 많고많은 사랑의  
이야기  
내 어이 다 노래할수 있으랴만  
통일에 바쳐진 숭고한 사랑이  
새겨진  
감동의 화폭 다시 펼쳐보노라

어느해 4월  
봄향기 넘치는 대기를 가르며  
동해안선을 따라  
달리고달리던 특별렐차

그 렐차에는  
뜻깊은 4월의 봄 친선에출촉전  
그 축전에 처음 참가한  
한 남조선녀가수가 타고있었다

그처럼 오고싶던 북녘땅  
한겨레가 사는 땅을  
이렇게 밝아보는것만도  
그지없는 행운인데  
그이를 만나뵈옵수 있나니

너가수의 절절한 소망  
마음속 소원까지도 다 헤아려  
몸소 특별렐차까지 보내여  
자신의 걸으로 불러주신 장군님

잘 왔다고  
반갑다고 두손을 잡아주실 때  
너가수의 가슴속에 갈마드는  
이 세상 다시 없는 행복한 생각

온 겨레를 뜨겁게 안아주시는  
민족의 아버지 위대한 장군님  
오랜 세월 오늘까지  
자기를 보살펴주신것만 같아  
친정아버지 모습처럼 안겨왔어라

6.15와 함께  
김정일열풍이 휩쓰는 남녘땅  
자기도 그 열풍에 휩싸여  
그이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평양에까지 찾아왔다고  
격정에 넘쳐 아뢰는 너가수

노래를 불러도  
장군님 칭송의 노래만 부르고싶고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싶은 심정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 못한 소원  
마음속에만 간절히 묻어둔 소원  
하나 어떻게 그의 마음  
그렇게도 잘 헤아려주실가  
장군님 노래를 들어보자고 하신다

노래를 참 잘 부른다고  
가까이 불러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파분한 치하도 해주시는 장군님

꿈만같은 시간은 흐르고  
너가수는 행복에 시간을 잊고있는데  
자주 와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 따듯이 말씀하신다

—이제는 문이 열렸으니  
누구도 그 길을 막지 못할것입  
니다

눈물속에 기쁨속에

장군님을 우러르는 너가수  
그의 마음속엔  
그 무엇으로도 멈출수 없는  
신념의 노래가 터져올랐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이시여  
그가 누구든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두팔 벌려 안아주시는  
민족의 아버지품으로 달려오는  
거세찬 이 대하를 막지 못합니다

위대하신 당신은  
저의 친정아버지이십니다  
경애하는 당신은  
7천만 우리 겨레의 아버지이십니다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사람들이여  
이것이 어찌  
그 혼자의 심정만이였으랴  
장군님을 만나뵈온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터치는 이 진정

아버이 품을 찾아  
남녘의 가수가 달려왔던 길  
그 길을 따라 남녘에서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오고왔던가

정해진 두줄기 궤도를 따라  
렐차는 달린다 했더라  
그러나 우리 장군님 렐차는  
그 궤도우로만 달리지 않았어라

궤도가 없었다  
우리 장군님 렐차에는  
분계선이 두줄기 궤도를 끊어놓았  
어도

장군님 마음은 서울과 대전 부산...  
남녘땅 곳곳에 다 뻗어있었거니

하루에도 그 몇번  
밤이나 낮이나 빼없이  
혈육의 정을 안으시고  
마음속의 그 궤도를 달리셨을  
장군님

얼마나 아프시었으랴  
한치맥을 이었던 철길을  
무참히 동강낸 저주로운 분계선  
수십년세월 녹이 쓴채로 내버려진  
그 철길이 끊어진 민족의 혈맥같아

하루바삐 그 혈맥을 잇고싶으신  
장군님의 심정  
그 철길로 통일의 기적소리  
드높이 울리게 하고싶으신  
장군님의 념원

그 심정 그 념원으로  
신의주—서울사이 철길을  
런결 해 주셨으면 하는 남 측의  
요구에  
장군님 뜨겁게 하시던 말씀이어

그러면 조선땅이 쪼그러든다  
서해선철길만이 아니라  
동해선철길도 런결해야 한다

아,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릴  
삼천리 내 조국의 밝은 래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실험을 다 바쳐오신  
민족의 아버지

정거장도 따로 없이  
오직 통일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힘없이 끝없이 달려온 렐차와  
더불어

6.15시대는 기운차게 전진하여왔  
나니

그 시대에 폭풍처럼 터져오르던  
위인칭송의 열풍  
남녘의 곳곳에서  
해외의 곳곳에서  
터져오르던 위인찬가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영원한 태양찬가로 울린다

태양의 빛발 우러르는  
겨레의 마음속에 달리고달리는  
우리 장군님의 렐차  
오늘도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통일을 향해 달리고있어라

## 3

망망대해에 비할수 없는  
너무도 작은 베이컨만  
조국을 싣고  
온 민족을 싣고 달리던  
통일의 크나큰 배  
장군님 리용하시던 배여

물에는 자욱이 찍히지 않는다  
했지만  
통일을 위해 장군님 남기신 자욱  
가없는 푸른 물결우에도  
끝없이 새겨져있어라

넓고넓은 바다에  
추억의 닻을 내리면  
겨레의 가슴에 안겨오는  
한없이 은혜로운 장군님사랑

깊어지는 생각속에 어려오누나  
우리 장군님  
남녘기업가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금강산관광을 위한 빠른 배길까지  
정해주시던  
잊지 못할 화폭이

금강산이 바라보이는 배갑판우에서  
남녘의 기업가들을 위해 오찬을  
배우신 장군님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금강산까지  
오는  
시간을 물으시었어라

부산과 동해항에서 떠난 배들이  
공해로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사연  
하루길도 안되는 관광길  
이들만에 온다는  
남측관계자들의 대답을 들으시며  
생각도 깊으신 장군님  
또다시 크나큰 은정 배우시어라

북남관계에선  
에도는 일이 있어서야 되랴  
곧바로 들어오라!

남녘동포들의 편의를 봐주고  
남녘기업가들의 실리를 보장해주랴  
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번영하자는데 있다

철세위인의 대법한 도량과 결단에  
남녘의 기업인들 감격을 금치 못해  
하는데  
몸소 축하잔도 쥘어주시며  
동포애의 정 뜨겁게 부어주신  
장군님  
력사에 남을 사진까지 찍어주셨나니

사람들이여 무심히 보지 마시라  
남녘의 기업인들과 함께 찍으신 그  
사진은  
사랑으로 아버이의 사랑으로  
온 겨레를 한품에 안으신  
위대한 아버이의 그 모습은  
태양처럼 눈부신 사진이여라

정녕 그날에  
위대한 장군님 그어주신  
금강산관광로정  
그것은 그대로 통일로정이었으니

에둘이 없이  
오직 곧바로!  
키 좌로 우로가 아니라  
오직 곧바로!

통일은 오직 곧바로!  
이것은 장군님의 신념이고 의지  
그 신념과 의지로  
통일의 키를 잡으시고  
7천만 우리 겨레를  
곧바로 향도하신 아버지장군님

바다를 헤가르며  
남녘겨레를 금강산에 왔던가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실려  
금강산을 찾고 또 찾아왔거니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사랑의 한품에 품어주시고  
나아가 앞길을 밝혀주시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여주신  
장군님

하기에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을 태양으로 불렀다  
통일의 태양으로 칭송하며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겼거니

겨레여, 무심히 보지 마시라  
쉽없이 설레이는 저 바다를  
우리 장군님의 통일의지  
뜨거운 동포애를 전하며  
바다도 잠들지 못함을 잊지 마시라

아,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며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에 닻을 내린  
배  
정녕 여기에 닻을 내렸던가

통일의 길에 아로새겨진  
철세위인의 전설같은 이야기 수놓으며  
금수산태양궁전의 배  
오늘도 통일의 항로우에 있어라

\*

\*

위대한 장군님  
승용차를 타시고  
렐차를 타시고  
배를 타시고  
달리시던 길  
그 길을 이어  
나의 노래는 계속되거니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사상과 정도, 품모도 통일의지도  
꼭 같으신

김정은원수님  
그분을 모신것은 민족의 천운

장군님의 통일유훈 꽃피우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분  
장군님 한생을 바쳐 걸고걸으신  
통일의 길 원수님 이어가시기에  
나의 노래 더욱 뜨겁나니

겨레여 듣지 않았느냐  
뜻깊은 올해신년사에서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그 말씀

위대한 수령님  
조국통일문건에 생애의 마지막헌필을  
남기신 20돛이 되는 올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거족적인 투쟁으로  
힘차게 열어가자고 호소하신 원수님

그 모습 찬란한 태양이런가  
겨레가 터친 홀모의 격정  
그이 모시여 민족의 미래  
통일조선의 앞날 창창하다고  
남녘에서 해외에서  
터쳐올린 감격의 환호

대결과 불신을 가지고  
민족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실  
원수님의 숭고한 뜻

그 뜻에 받들려  
분렬의 열음장은 녹아내리고  
통일의 새봄맞이 그리며  
삼천리강토가 설레이나니

태양의 성지 이곳에서  
나는 보노라  
6.15를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처럼  
우리 원수님  
이 땅에 안아오실 통일의 해돋이  
하나로 된 내 조국의 모습을

이제 세계는 보게 되리라  
영원한 태양의 빛발아래  
하나가 되는 조선을  
통일강국으로 위용펼칠  
삼천리 내 조국의 휘황찬 모습을

김정은원수님 높이 모시여  
장군님은 민족의 아버지, 통일의  
태양으로  
겨레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나니  
겨레가 부르는 통일의 태양찬가는  
세월의 언덕넘어 끝없이 울려퍼지  
리라